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Understanding No Gun Ri Record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Memory

윤은하 (Eunha Youn)**

김유승 (You-seung Kim)***

목 차

- | | |
|---------------|-------------------|
| 1. 시작하는 글 | 3. 노근리 사건의 기억과 기록 |
| 2. 사회적 기억과 기록 | 4. 맺는 글 |

<초 록>

본 연구는 노근리 학살사건 기록들이 사회적 기억을 담지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사회적 기록의 특징을 분석한다. 사회적 기록은 첫째,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물로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기억의 가변성을 반영하며,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저자는 노근리 사건의 기억과 기록의 분석을 위해 노근리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제1기 반기억의 시기, 제2기 기억 투쟁의 시기, 제3기 공식기억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기억과 기록의 변화과정과 특징 및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기 구술 및 개인 소장 기록 등의 암묵적 기록, 제2기 대책위활동, 입법활동, 조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록, 제3기 특별법과 평화공원 건립 및 운영 관련 공식 기록이 각각 주로 생산되었다. 제3기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생산한 다양한 문화기록들로 기록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기록, 노근리 학살사건, 반기억, 사회적 기억, 아카이브 사회적 기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how the No Gun Ri massacre records are incorporated in social memory. As a theoretical study, i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cords. First, they are social products that have an influence on personal memory. Second, they reflect variability of memory. Third, they can be used in proving an event. To analyze the memory and records of the No Gun Ri massacre, this study overviews the outline of the killings and divides it into three eras: counter-memory era, memory struggle era, and formal memory era.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s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era. The representative records produced in each era are as follows: oral, and personal records in the first period: records related to committee activities, legislative activities, and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period: and official records on the special law,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peace park in the third period. The third period shows the scalability of the records through a variety of cultural records production to remember the No Gun Ri incident.

Keywords: records, No Gun Ri massacre, counter-memory, social memory, archival social records

* 본 연구는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6027).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노근리디지털아카이브 프로젝트>에는 김수진(중앙대학교 박사과정), 김유승(중앙대학교 부교수), 류반디(중앙대학교 박사과정), 박태연(중앙대학교 강사), 신동희(University at Albany 부교수), 윤은하(전북대학교 조교수) (가나다순)가 참여하고 있음.

**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eyoun@jbn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6년 5월 2일 ■ 최초심사일: 2016년 5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6년 5월 23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201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2.057>>

1. 시작하는 글

기록관리에서 사회적 기억이 화두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시작 된 지 20년이 가깝다.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 사회학자 Maurice Halbwachs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1980년대 역사학 영역에서 먼저 주목받았다. Halbwachs는 개인적 기억 자체보다는 그것이 매개되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했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역사학을 비롯한 철학, 사회학과 기록학 등에서 권력담론과 연관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록학 영역에서는 1999년 역사학자 겸 기록학자인 Francis X. Blouin이 Archival Issue에 연구논문, Archivists, Mediation, and Constructs of Social Memory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Brien Brothman(2001), Schwartz, Joan and Cook(2002), Verne Harris(2002) 등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록학자들이 아카이브와 권력, 사회적 기억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Hans Booms의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론과 함께, 기억이 특정한 사회적 틀 안에서 집단적으로 존재하며 아카이브가 사회 정체성을 규정 짓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억과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연구가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억을 담지한 기록으로서 아카이브 기록이 갖는 특징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다. 특히 이제껏 기록관리에서 기록은 주로 행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증거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억에 관련된 기록 연구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

다. 이에 대해, Terry Cook(2013)은 전통적으로 아카이브가 오로지 증거의 불편부당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수집, 정리, 기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기억과 정체성, 공동체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록이 기록의 증거성을 완전히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사회적 기록은 그 사회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기록들이 서로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각기 다른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아키비스트는 오랫동안 이 두 종류의 기록들을 관리해왔음에도 공공기록의 증거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사회적 기록물의 기억을 관리하는 방식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했을 뿐이다(Cook, 2013). 그 결과 사회적 기록물은 그 기록이 가진 고유한 특징과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합당한 이론적 정의를 가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적 기록의 기록적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사회적 기록에 관한 연구는 결국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는 기록학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근리 사건 연구는 사회적 기억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고찰해보고, 이러한 공적 기록과 구분되는 사회적 기억을 담지한 기록들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950년 7월 2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노근리 학살사건은 1990년대 중반 국내외 언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기까지,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주류의 기억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개인의 아픈 기억들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1999년 한미 양국의 공동진상조사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2004년 ‘대한민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기록들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공동 경험으로, 기억해야 할 사회적 기억으로 급진화되었다. 노근리 사건 관련 기록들은 노근리 사건이 개인 기억에서 사회적 기억으로 변화하면서 생성된 기억의 특징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기억이 공식화되면서 기록의 형태도 점차 공식적 형태로 바뀌는데 이러한 기록의 변화는 사회적 기록의 특징을 드러낸다.

본고는 이러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억으로서 노근리 사건을 분석하고 기록들이 사회적 기억을 담지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근리 사건을 기억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나타나는 기록물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했다.

2. 사회적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기억이 갖는 특징을 공유한다. 공공기록이 특정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록물은 당대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의 증거다. 이때 기록이 기억을 내포했다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 하에 생산되는 증거적 기록은 물론, 기록의 실질적 생산 목적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모든 형태의 증거를 포함한다. 우연히 발견된 편지, 일기와 메모 등 특정 시기 존재했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록, 더 정확히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이란 무엇인가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억의 함의를 포착해야 한다. 사회적 기억은 인간의 기억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개인 기억의 함이 집단 기억이라거나 개별의 기억을 합하면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이 된다는 수학적 논리와는 구별된다. 나와 너의 기억,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기억, 우리 지역과 우리 도시의 기억의 함이 곧 우리 사회의 집단 기억이 아니라는 지점에서 사회적 기억담론을 제기한 학자들의 의문이 시작된다.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억은 개인 기억이든 집단 기억이든 상관없이 기억 자체가 선택적 행위라고 말한다(Halbwachs, 1922; Hutton, 1993; Yassman, 2011; 전진성, 2003; 김학이, 2005; 안병직, 2007; 김명훈, 2014; 신동희, 김유승, 2016). 가끔은 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기억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기억되기도 하며 또, 일정 기간 동안 기억을 했지만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일요일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지난 일요일에 한 일을 물으면, 그 누구도 7시에 눈을 떠서 7시 5분에 화장실에 갔다가 7시 10분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8시에 TV를 켜다는 식으로 자신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열거하는 사람은 없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청소 했어요”, “교회에 갔어요”, “시험공부 했어요” 혹은 “하루 종일 잤어요” 심지어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다. 즉, 내가 일요일을 기억해내는 것은 그 날 내가 한 모든 행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떠올리는 사람은 실제 24시간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기억할 만한 일이 특별히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기억할 만한 일로 여기는가. 질문은 그 사람의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개인의 삶에 대한 해석과 사회적 의미체계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해석과 태도, 중요 경험이라고 선택하는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기억'이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기억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음의 질문들이 줄을 잇는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 기억인가, 중요한 기억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는가, 혹은 정치적 결정인가, 누가 중요한 기억을 결정하는가.

신동희, 김유승(2016)은 Halbwachs와 Thelen을 인용하며 “기억이 단순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관계, 정치 체계, 사회적 권력 관계 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지적했다. 즉 사람들의 기억이란 사회적 권력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자 Maurice Halbwachs(1922)에 따르면, 개인 기억이든 사회적 기억이든 모든 기억은 기억이 모아지고 해석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기억도 절대적 진리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기억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인식론적 틀에 더 많이 좌우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지식과 역할, 관점에 따라 그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 결정되며 의미를 부여받는 다른 해석적 과정을 겪는다.

다시 개인 기억과 사회적 기억의 관계로 돌아가보자. 모든 개인 기억은 그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를 지낸 개인 기억들 속에는 학교, 학생 운동, 민주화, 경제발전이라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 격렬했던 대학생들, 운동장을 가득 채우던 매캐한 최루탄 냄새,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친구, 컬러 텔레비전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동료와의 개인적 경험이 있다. 1950년대와 한국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의 개인 기억 속에는 고막을 뚫는 듯한 굉음, 피난, 가난, 공포와 함께 기억나는 나와 가족, 전쟁의 경험이 있다. 1930년대를 기억하는 조부모 세대의 경험에는 일제 강점이라는 역사의 굴레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등장하는 개인들의 삶이 있다. 일제 강점이라는 엄혹한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고단한 삶과 빈곤함만이 강조되는 기억이 있을까. 생(生)과 사(死)를 오가는 전선의 긴장감과 남북 간의 대치라는 정치적 맥락을 배제한 채 오로지 전우의 얼굴만 기억할 수 있을까. Davis(1999)는 사회적 해석의 진공 상태에서 떠오르는 개인 기억은 없다고 단언한다.

문제는 개인 기억을 결정하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는 이미 다층의 해석적 코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의 평가에 대해, 남북 분단의 발생 원인에 대해, 그리고 학생 운동의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내리

는 다양한 해석들에 개인의 경험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리하여 동일한 개인의 경험일지라도 일제강점기 빈곤의 경험과 2016년 빈곤의 경험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듯 기억이란 특정 시대에 통용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가치와 집단적 인식의 흐름에 기반한다. 개인의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인, 그야말로 사건의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 기억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아무런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기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Halbwachs(1922)는 “기억을 하는 것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기억들은 사회적 맥락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억의 재구성은 주류 사회 권력과 가치 체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개인 기억의 단순한 집합이 곧바로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모든 개인 기억의 토대가 사회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류적 사회 권력과 가치 체계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도록 강제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적 기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사회적 기억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물로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사건을 특정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 결정이며 개인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억에 의미를 부여한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지닌다. 사회적으로 기억되고 공유되고 다시 전달되어야 하는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남겨진 것이라

기보다는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지 그 사회적 절차와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록은 기억의 가변성을 반영한다. 사회적 기억의 재구성에는 각종 문화적 코드들, 텍스트, 그림, 상징, 구술, 의례 등 다양한 문화적 장치들이 동원된다. 기록은 이러한 기억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코드로 간주된다. 아카이브는 텍스트, 그림, 구술, 상징 등 기억을 증거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는 중요 기억기관(memory institute)이다.

이러한 기록의 집단성과 사회적 성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학자 Jan Aassman은 Halbwachs가 기억 담론에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형과 망각, 재구성, 기존의 집단 기억에 첨가 등 사회적 저장소의 기능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즉 집단 기억에의 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 차원만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작용하는 역동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전진성, 2005). 사회적 기억은 고정불변의 가치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정치사회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한다. 또한, 하나의 기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해석에 노출되며 다양한 문화적 매개물을 통해 재현된다. Assman(2011)은 이러한 기록의 문화적 재현성과 변형을 지적했고, ‘문화적 기억’의 개념을 통해 문화이론 속에서 사회적 기억을 이해했다. 집단 기억과 개인적 기억 사이의 상호관계를 문화적 장치로 설명하고, 개인이 ‘우리’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연결 구조의 반복과 메커니즘화라는 방식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일정한 방식으로 재현한다는 것임을 밝혔다(김기곤, 2006; 김학

이, 2005). 이러한 문화적 장치들, 기록물, 텍스트, 건축물, 기념비 등을 통해 지나간 과거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새롭게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변화에 연동하는 사회적 기억 변화의 결과는 특정 기록의 생산으로 귀결된다. 사회적 행위의 증거로서 기록은 어떠한 양식으로든 사회적 맥락을 드러낸다. 또한, 특정 시기에 고정된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어떠한 시기에는 구술로, 또 다른 시기에는 문자로, 상이한 의미를 내포한 그림으로, 이야기체의 소설로, 시간이 지나 기억이 사회적으로 고착화될 때는 공식 문건으로도 존재한다. 기록 기술이 발전해나가면서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기도 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웹기록의 모습을 띄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록' 혹은,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이란 무엇인가. 현재까지 기록관리는 '사회적 기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범주나 형태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사회적 기억을 내포하는, 또는 사회적 기억의 결과물로 사회적 기록을 이해하며, 공공 기록과 구분되는 기록으로 정부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된 기록이 아닌 기록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사회적 기록은 공공기록과는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적 기록은 사회적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 사건의 진행 중에, 혹은 그 경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때문에 기존의 공공 기록과는 또 다른 목적으로 생산되고 전달, 유통된다. 그 결

과 이미 많은 기록관리연구자들이 언급하였듯, 사회적 기록들은 기존 공공 기록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록 매체들, 형식들, 장르를 포함한다. Jeannette Bastian(2013)은 기존의 공적 아카이브가 아닌 이러한 아카이브들을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 '대안 아카이브(alternative archives)' 혹은 '후식민주의 아카이브(postcolonial archives)'로 명명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아카이브에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해 새롭게 정의되고, 생산되고, 보존되는 모든 기록들은 포함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구술, 노래 및 춤 등의 문화적 형태를 포함하여 기념비(Monuments as archives), 옷(Memory cloths), 매거진(The Gaily News), 장소(An archive of place)로 확장된다. 또한 Kelvin White(2009)도 이미 한 사회의 기억이 담지되어 있다면 그 사회의 고유의 노래와 춤, 의례도 기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Anne Gilliland와 Michell Caswell(2014)은 대량학살의 사건처럼 기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혹은 남겨질 수 없는 경우, 사건 당사자의 기억이 유일한 기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을 담고 있는 기록들은 기존의 기록과 그 특징 및 형태면에서 무한히 확장되는 특성이 있다. 노근리 사건의 기록 역시 이러한 사회적 기록물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즉,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의도치 않게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다. 노근리 사건은 오랫동안 무성한 소문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였을 뿐, 당시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은 학살의 현장을 겪은 사람들

의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기억되었다. 피해자들의 기록은 오랫동안 그저 이야기로만 존재했다. 학살의 공식적 증거는 미군이 전쟁 중에 생산한 기록이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Donghee Shin(2007)은 이에 대해 미군의 전쟁 기록이 공식적으로 생산되고 보존되었지만 미군의 기록은 노근리 사건을 미군의 한국전 임무 중 일부로 묘사하였을 뿐, 양민 학살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노근리 사건을 증거하는 사회적 기억은 앞서 Bastian, White 그리고 Gilliland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서화된 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와 장소, 옷, 구슬, 노래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회적 사건의 주체들은 하나의 사건일지라도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거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기억도 집단과 시대에 따라 변한다. 사회적 기록은 이러한 시공의 다양성,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들이 생산한 기록의 고유성 또한 그대로 반영한다. 사회적 기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역동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기억이 시간에 따라 가변한다는 사실과 기록은 이러한 기억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 기인한다. 노근리 사건은 이후 희생자들의 구술과 이를 이해한 또 다른 주체들, 언론과 정치가들, 사회운동가와 연구자들에 의해 재현되고 새로운 기록형태의 기록으로 재생산되었는데, 이러한 기록의 변화는 기억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가치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Anderson(2013, p. 366)은 사건 중심의 역동적 기록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적 기록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증거를 보존한

다. 그러나 증거는 변화와 차이라는 개념에 종속되어 있다. 증거는 변화하는 (사회적) 의미들을 하나로 잇는 실타래와 같다. 시간에 대한 순차적 관점에서, 이 실타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시간에 대한 무정형의 시각은 관계와 연결망 혹은 네트워크로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변화가 없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

Anderson(2013)은 기록이 고정불변의 속성을 통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전통적 시각을 부정하며,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기억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기록의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사건 중심의 기록들이 가지는 속성 중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기억의 역동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 통용되는 기억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시기별로 다양한 측면의 의미와 해석을 부여받는데, 종종 정치적, 사회적 해석들의 변화가 전혀 다른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개인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과 기억해야 할 것들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이야기나 기록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수집되며, 과거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기록들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억과 망각은 정치적 속성을 그대로 지니며, 사회적 산물인 기록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해석의 변화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도 기록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사건의 전모가 대중에 널리 알려진 1999년 이후, 노근리 학살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한국전

쟁에 대한 사회정치적 의미와 함께 중요한 변곡점을 통과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록의 변화를 함께 겪는다. 전자메일,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의 새로운 매체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록들이 등장했고,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 쓰인 전통적 문자 기록을 넘어서, 기록 매체와 유형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다가왔고, 지금 이 시각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억을 증거하는 다양한 기록들은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Anderson(2013)은 Klopfer를 인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한 종류의 기록들만 생산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흑인들은 항상 구술기록만을 생산해내고, 백인들은 항상 문자 기록만을 생산해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하나의 기억은 구술과 동시에 문자로 생산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들이 '따로 또 같이' 생산되고 이용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생산된 복합적 기록들은 시간의 변화와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에 따라, 혹은 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기억을 생산해내기도 한다. 사회적 기억에 다양한 시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을 반영한 기록이 급증한다. 사회적 기억을 다루는 기록은 그 종류에 있어 대단히 다양할 뿐 아니라 종종 기준에 예측하지 못했던 형태의 기록들—문화콘텐츠, 학술 연구, 소셜 미디어 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민간 기록의 다양성 차원에서 언급되기보다는 다양한 기억을 가진 기억 주체들의 인식론적 차이,

기억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기록 생산 메커니즘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기억 기술(memory technology)의 변화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은 이러한 사회적 기록이 갖는 속성을 공유한다. 사회적 기억의 변화에 따라, 또 기억 주체의 변화에 따라 기록물은 그 형태와 장르를 다각화하며 확장된다. 한국전쟁 이후 진행된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와 해석이 기록 형식과 내용의 변화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노근리 사건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 그 사회적 기억의 위상 변화를 겪음에 따라 기억 역시 이러한 전이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노근리 사건의 기억들을 통해 사회적 기록의 다각화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노근리 사건의 기억과 기록

노근리 사건의 기록들은 그 노근리 사건이 겪어온 한국 현대 역사의 굴곡을 그대로 반영하며, 독재정권부터 현재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쟁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보여준다(김형곤, 2007). 본 장에서는 사회적 기억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근리 사건을 살펴보고, 남겨진 노근리 기록의 특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3.1 노근리 사건의 개요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6일 영동군 영동

읍 주곡리 및 임계리 주민들이 미군 제1사단의 명령대로 경부국도를 따라 대구 쪽을 향해 피난길을 떠나는 와중에 발생했다. 피난민들이 26일 아침 하가리를 떠나 서송원리 부근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미군들은 피난민의 길을 막고 그들을 경부선 철도 위로 올라가게 했다. 피난민들은 철도를 따라 충북 영동군 향간면 노근리까지 걸었다. 이때 미군은 피난민이 무장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 가운데로 폭탄을 쏟아부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경부선 철로 아래 위치한 쌍굴로 내려가 숨었다. 미군은 7월 29일까지 3일 60여 시간 동안 쌍굴로 대피한 피난민들을 학살했다. 이로 인해 신고된 사망자는 177명, 부상자 51명, 행방불명자 20명으로 피해자 전체는 248명에 이른다. 신원미상의 피해자를 합치면 약 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정진성, 2000).

노근리 사건의 초기 진상규명 활동은 피해자 정은용에 의해 주도되었다. 정은용은 1960년 서울 소재 미국 소청사무소에 노근리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신청한 이후 국내외 각계로의 청원활동을 지속하였고, 1994년에는 노근리 사건 실화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출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99년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같은 해 AP(Associated Press)의 집중 탐사보도는 사건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AP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1년 반의 취재 끝에 1999년 9월 30일 당시 노근리 사건 현장에서 작전을 했던 미군의 증언을 곁들여 노근리 사건의 전모를 보도했다. AP의 보도 이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가 1면 기사로 노

근리 사건을 다루었고, CNN, ABC, NBC 등 미국 유력 방송사들이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 노근리 사건을 보도한 찰스 헨리를 비롯한 4명의 AP 기자들은 2000년 폴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정구도, 2006).

이러한 진상규명 노력과 여론에 힘입어, 2001년 한미 양국 정부 조사단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미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추모비 건립을 제안했고 우리 국회는 2004년 『노근리사건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을 근거로 노근리 평화공원이 건립되었고, 노근리 학살지인 쌍굴다리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노근리 사건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 다음 세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 전쟁의 공식 기억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다.

3.2 노근리 사건 기억과 기록의 연대기적 구분

19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기억과 기록은 크게 3시기로 <표 1>과 같이 연대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1950-1999)는 노근리 기억의 암묵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노근리 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다. 노근리 사건은 유족들의 개인 기억으로, 우리 사회의 반기억으로 억압되어 있었다. 이 시기 정은용의 지속적 소청 활동과 실화 소설의 출판,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대부분의 기록들은 주류 사회의 철

〈표 1〉 노근리 사건 기억의 연대기적 구분

| 시기 구분 | 기간 | 특징 | |
|-------|-----------|-----------|------------|
| | | 기억 | 기록 |
| 1기 | 1950-1999 | 반기억의 시기 | 암묵적 기록의 시기 |
| 2기 | 1999-2004 | 기억 투쟁의 시기 | 변화된 기록의 시기 |
| 3기 | 2004-현재 | 공식 기억의 시기 | 확장된 기록의 시기 |

제한 외면 속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의 구술 형태로 존재했다. 사건의 기억들은 공공 기록이 아닌 희생자의 개인 기억으로,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에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노근리 사건의 암묵적 기록의 시기, 반기억의 시기로 규정한다.

제2기(1999-2004)는 기억의 투쟁기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겨레신문, 월간 말,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의 국내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고, AP 통신, U.S. News & World Report, CNN, BBC 등 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다. 앞서 언급한 AP의 폴리처상 수상과 함께, 국내외 언론의 관심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반기억으로 존재하던 노근리 사건이 국내의 관심을 넘어 국제적 관심으로 확장되면서, 주류의 공식기억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등장한, 기억 투쟁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탐사보도와 언론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 피해자의 구술 기록들이 문자기록으로 변이되고 언론과 출판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나아가 소송을 위한 행정기록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즉 이 시기 사건의 기억은 직접적 당사자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러한 기억의 사회적 확장성은 기록의 확장성으로 이어

진다. 동시에 이전에 희생자들이 민간에서 통용되던 이야기 역시 좀 더 공식적인 사건 조사와 면담이라는 절차 속에서 구술 기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목적과 절차를 거쳐 생산되기 시작했다.

제3기(2004-현재)는 2004년 『노근리사건특별법』의 제정과 평화재단의 건립,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록, 노근리 인권평화캠프 및 인권 백일장 대회 개최 등으로 노근리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식 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다. 비극적인 개인 기억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식 기억으로 규정되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기록이 생산되었던 시기다. 노근리 평화공원 수장고에는 진상규명 활동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도서, 만화, 음악, 영화 등 문화콘텐츠 기록, 위령제 등 행사 기록이 망라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제3기의 노근리 기록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공인 기록들이 생산되는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양한 주체들이 노근리 사건을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기억으로 포함시켰다. 이제 노근리의 기억은 사람들의 기억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기록 방식으로 노근리를 기억하고자 했다. 피해 유족들은 위령제로 그들의 아픔을 기억했고, 영화인들은

영화로, 미술가들은 그림으로, 음악가는 칸타타로, 만화가는 만화로, 학자들은 논문으로 사건을 기억하고 표현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록 방식은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재생산되었다.

현재 노근리 평화재단의 수장고에는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단 하나의 형태, 구술이라는 직접적이고 비공인된 기록을 생산했지만 이후 노근리가 사회적 기억으로 정착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은 노근리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 언론기사, 연구논문, 심사보고서, 행정기록, 영화, 그림, 학술대회 발표집으로 생산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에 걸쳐 노근리디지털아카이브 연구팀과 전북대 기록관리대학원 지역문화콘텐츠팀은 노근리평화재단의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출처별 정리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 만든 목록에서 드러난 기록물을 분석하여 사회적 기억과 관련된 기록들의 특징을 포착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노근리 평화공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각 시기별 사회적 기억과 기록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3 제1기: 반기억의 시기, 암묵적 기록들

3.3.1 반기억

노근리 사건은 왜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나고 주목받기 시작했을까. 군인에 의해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했음에도 피해자들은 왜 50년 동안 침묵했을까.

정진성(2001a)은 이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군부 독재에 의한 언로(言路)의 억압, 둘째, 불합리한 한미관계, 셋째, 남북 분단 체계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비극적 경험을 말할 수 없었다. 즉, 당시 학살의 경험이 주류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독재 정치체계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자율성과 민주화에 많은 제약을 가했다. 우리 사회의 주류 권력은 불합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장 이데올로기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념적 기제로 선택했고 이와 다른 경험과 사상은 억압했다.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정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의미했고, 반사회적인 사상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미군에 의한 피해는 대미 의존적이고 반공을 국가유지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았던 정부에서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 실제로 정은용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실을 드러내는 이유를, "빨갱이로 몰릴까 봐"라고 진술한 바 있다.

독재 정권이 인정하는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 기억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었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과 미군의 원조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전사한 국군의 숭고한 정신과 미군의 희생에 관한 기억들은 지속적으로 발굴, 강조되었고 이에 도전하는 경험과 기억들은 반기억으로 규정되어 무시되거나 억압되었다.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한 피해를 언급하는 것은 '반미' 혹은 '중복'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확장되어 해석되었고,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반사회적 경험으로, 은폐되어야 하는 반기억으로 규정되었다. 기억의

정치가 발화하는 지점에서 노근리 사건을 말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감정을 느끼도록 강요받았다. 왜 노근리 사건을 파헤쳐야 하는지 되물으며, 그냥 덮어둘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현용수, 2003). 노근리 사건 대책위의 초기 구성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았고, 정은용의 실화 소설 역시 출판사들의 계속되는 거절 때문에 여러 출판사를 전전해야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증언을 잘 반증하고 있다(정구도, 2006). 이 시기 국가는 그들에게 침묵하기를 강요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남기기 위한 자신들만의 문화적 코드를 찾아야 했던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3.3.2 암묵적 기록들

1950년 7월 26일 노근리 사건 당시부터 1999년까지, 노근리 기억의 암묵기, 반기억의 시기에 남겨진 기록들은 이후 시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피해 당사자들은 그날의 시간과 장소를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로 기억했다. 하지만 노근리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참혹하고 우울한 기억은 다른 이들의 전쟁 경험과 달리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거대 서사에 포함될 수 없었고 그들의 기억은 고립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자 사건의 증거이며, 기록이었다(Caswell & Gilliland, 2015). 제1기의 기록은 생존자의 구술 기록과 증언, 생존자 증언에 근거한 피해자 정은용의 실화 소설, '조선인민보'를 비롯한 국내외 신문기사, 그리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미군 문서 등이 있다. 신동희(2007)에 따르면, 대개의 기록들, 특히 문자로 쓰여진 공공 기록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술된 기록이었다.

초기 피해자의 기억들은 대개 구술이거나, 이를 취합하여 쓴 소설의 형태로 존재하고 비공식적인 형태로 보존되었던 것에 반해, 미군의 기억은 공문서 형태로 국립아카이브에 보존되었다. 한국에서 노근리 사건의 기억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였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기법이 동원되었다. 노근리의 기억은 진실과 허구 사이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공식적 사건으로 알려지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인된 기억 기술 방식으로 남겨지지 않았다. 단지 1960년 소청사무소에 제출했던 기록들의 일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청 시기를 놓치고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 공공기록의 일부로 남지 못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 이후 노근리의 기억의 형태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사회적 사건의 또 다른 주체라 할 수 있는 언론 기자와 학술연구자들에 의해 기사와 학술 논문의 형태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으며 그 결과 점차 문자화된 공식 기억 생산이라는 문화적 메커니즘 속에 위치하게 되었다. AP 탐사보도팀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사화했고, 시사저널, 월간 말, 한겨레신문 등의 기자들도 사건 현장을 방문, 취재하고 노근리 사건의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구술로만 존재하던 노근리의 기억을 문자로 우리 사회의 공적 지식 생산 형태로 변형시켰다.

〈표 2〉는 평화공원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는 제1기에 생산된 기록물 목록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제1기 기록물 목록 일부

| 유형 | 내용 |
|--------------------------------|--|
| 구술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 구술기록 • 노근리사건 증언청취록 |
| 소청관련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소청사무소에 제출한 소청 관련 기록 |
| 미군 기록 (미 국립문서보관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기병 연대 전투일지 • 제5기병연대사 • 제1기병 사단사, 작전계획 및 보고서 |
| 민간 기록 (미 대학아카이브 한국전쟁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 중군 기자의 목격기(S.M. Swinton Collection, AP Correspondent, Box 1, Bently Historical Library, U of Michigan) • 병사들의 개인 편지 |
| 언론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 조선인민보 제40호 • 1994. 7. 오연호, “최초 증언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300여 명 학살사건”, 월간 말. • 1994. 7. 황순구, “미군 노근리 학살 피해 유가족/ 미에 손해배상 요구 계획”, 한겨레신문. • 1994. 7. 황순구, “미군 학살 노근리의 제사철”, 한겨레신문. • 1997. 8. 서중권, “625때 미군이 학살, 국가상대로 손배소송제기”, 문화일보. • 1998. 6. 이승한, “40년전 집단학살 왜소았나”, 국민일보. • 1998. 6. 윤상호, “정은용 ‘노근리사건’대책위원장”, 동아일보. • 1999. 9. Choe Sanghun, “War’s Hidden Chapter: Ex-GIs Tell of Killing Korean Regugess”, AP. • 1999. 9. Charlse Hanely, “It’s been goo to talk about these things”, AP. • 1999. 9. Elizabeth Becjer, “Pentagon Says It Can Find NoProof of Massacre”, NY Times. • 1999. 10. 승인배, “미 칸사단장 명령서”, 조선일보. • 1999. 10. 조무주, “노근리 학살 호적에도 흔적”, 국민일보. • 1999. 10. Charles Hanely, “Korean Vets Could Have Been Court Martialed But Not Today”, Experts Say, AP. |
| 학술논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찬규. 1999. 노근리 사건과 시제법. 『국제법평론』, 12: 85-89. • 이재곤, 정구도, 오윤석. 1999.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한국전쟁 시 소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민간인 살상사건’과 관련하여. 『충남대 법학연구』, 10(1): 111-136. • 최병수, 정구도. 1999. 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老斤里의 美軍 對良民 集團殺傷事件을 중심으로. 『人文 學誌』, 17(1): 245-283. |

3.4 제2기: 기억 투쟁의 시기, 변화된 기록들

3.4.1 노근리의 사회적 기억

반기억으로 규정되었던 시기, 노근리 사건 기록은 신뢰할 만한 공공기록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노근리사건 대책위 대변인인 정구도 역시 “국회도서관 등을 방문해서 노근리 자료를 찾는 일에 집중했지만 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다 전쟁 중의 일이라 기록이 제대로 없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정구도, 2006, p. 142). 그는 “구술기록과 소설은 문서증거주의를 강조

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서 자료 발굴에 온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동시에 노근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근리 사건 유족회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활동을 했다고 기술한다. 첫째, 문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노근리 실화 소설을 써서 발표하는 방법, 둘째, 노근리 사건에 관련한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방법, 셋째, 단순한 증언이 아닌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내외신 기자들에게 노근리 사건을 홍보하는 방법, 넷째,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등에 사과와 순

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적인 해결을 위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 다섯째,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방법 등을 통해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을 전개하였다(정구도, 2006, p. 133).

노근리 사건에 대한 기억이 반기억에서 공식 기억으로 인정받는 데는 언론을 통한 대외적 인정뿐 아니라 한미 양국 정부의 인정이 중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노근리 사건 대책 위원들은 1994년 7월 5일 미국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미국대사관에 제출했고, 7월 6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1997년 9월 10일에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에게,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깡그리치 하원의장에게 진정서를 보냈다. 이어서 12월 30일에는 법무부 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지방의회 영동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속적인 진상규명활동과 국내외 여론에 힘입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합동 조사활동과 진상조사보고서는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무척 미흡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이는 2002년 노근리 사건에 대한 미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적인 유감 성명과 2004년 「노근리특별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결국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은폐된 기억으로 묻혀 있었던 거창 학살 사건, 제주 4.3사건 등 한국전쟁 동안 일어난 학살 사건들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이 설립되었고 이는 한국전쟁의 실체에 대한 관심을 전환시켰다. 과거 독재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단일한 해석을 강요받았던 기억의 균열은 민간인 학살, 전쟁과 여성, 미군 외 해외 파병 병사에 관한 연구 등 다각적 기억을 재생산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1994년 이후 국내 정치권력의 변화와 사회, 정치적 분위기의 전환은 한국 사회와 전쟁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허용했고 노근리 사건은 국내외 여론의 전격적 지원과 피해자들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공공연히 언급될 수 있는 공식 기억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공공연히 기억을 드러낼 수 있었고 더 이상 빨갱이로 몰리지 않았다. 사건에 관한 뉴스가 언론을 타고 TV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다.

3.4.2 변화된 기록들

2000년부터 2004년 「노근리 특별법」 제정까지의 시기에 생산된 기록은 제1기와 비교할 때 양적 증가와 내용적 변화를 나타낸다. 구술 기록 중심의 피해자 기록들도 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률 문서로 생산되었고, 양국 정부의 진상규명 활동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기록들은 공공기록의 형태를 갖추었다. 한미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에게 보낸 성명서, 특별법 입법활동 중 생산된 문서들, 취재파일,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와의 서신, 피해자 명단 등이 이에 포함되며 다수의 연구논문들도 생산되기 시작했다. 즉, 기억의 투쟁기에 들어선 노근리의 기억은 공식기억의 생산 메커니즘을 따르게 된다. 김태우(2011)는 이러한 변화를 구술로 남아 있던 기억의 발굴

을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 기억이 수정된 사례로 인식하며, 문헌기록이 담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구술 기록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했다. <표 3>은 제2기 기억의 투쟁기시기에 생산된 노근리 기록물 목록의 일부다.

<표 3> 제2기 기록물 목록 일부

| 유형 | 내용 |
|----------|--|
| 대책위활동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방문, 미국 변호사 선임 • 성명서 • 노근리 사건 재조사 요구 등 노근리 사건 대책위 결성 및 활동에 관한 기록 |
| 입법활동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0월 14일 특별법 제정 청원부터 2004년 2월 9일 특별법 통과까지 생산된 관련 기록 |
| 조사활동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보, 군문서, 사단 작전 계획 등 중요 자료 확보하는 활동에 관련된 기록 |
| 인문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1. 이만열, “노근리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일보. • 2001. 1. 이용욱, “노근리 학살 유감 남긴 유감 표명”, 경향신문. • 2001. 1. 이태희, “미노근리 학살 실체인정”, 한국일보. • 2001. 1. 이하원, “노근리 한미공동조사발표 의미”, 조선일보. • 2001. 1. 현홍주, “노근리 그 비극을 넘어”, 조선일보. • 2001. 1. Elizabeth Becker, “Army Confirms GIs in Korea Killed Civilians”, NY Times. • 2001. 1. Robert Suro, “Clinton to Express Korean War Regret: U.S. Fails to Take Responsibility for Deaths of Unarmed Refugees at NoGunri”, The Washington Post. • 2001. 1. Robert Burn, “Army Says GIs Killed South Korean Civilians, Clinton Express Regret”, AP. |
| 학술논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정규. 200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전쟁과 인권 - 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2000. 6. 21: 3-22. • 민경길. 2001.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 연구: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1: 109-148. • 방선주. 2000. 한국전쟁 당시 북한 자료로 본 ‘노근리’사건. 『정신문화연구』, 79: 19-47. • 오영호. 2002. 노근리사건 조사 및 교섭결과 분석; 양면개입논리의 관점에서.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석사학위논문. • 이만열. 2000.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그 성격. 국회인권포럼 제9회 정책 심포지움: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 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1-20. • 이환준. 2001. 노근리 사건의 真相과 教訓. 軍史, 42: 185-220. • 정진성. 2001b. 인권침해 문제로서의 노근리 사건. 국회인권포럼 제9회 정책 심포지움: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 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23-44. • 조시현. 2001. 노근리 학살사건과 국제인도법. 성신법학: 65-106. • 최득진. 2000.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중앙대법정논총』, 49: 12-40. • 최병수. 2000. 노근리 학살사건에 관한 몇 가지 검토: 625 동란 초기 충북영동지구의 민간인 상해사건에 관한 연구II, 『人文學誌』, 19(1): 261-283. • Choon Kim. 2004. Forgotten War, Forgotten Massacre: The Korean War (1950-1953) as Licensed Mass Killings. <i>Journal of Genocide Research</i>, 6(4): 523-544. • Christopher D. Booth. 2000. Prosecuting the ‘Fog of War?’ Examining the Legal Implications of an Alleged Massacre of South Korean Civilians by U.S. Forces During the Opening Days of the Korean War in the Village of No Gun Ri. <i>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i>, 33(4): 933-986. • Hanley, Charles J., and Martha Mendoza. 2000. The Bridge at No Gun Ri: Investigative Reporting, Hidden History, and Pulitzer Prize. <i>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 Politics</i>, 5(4): 112-117. • Oh, Yeon-ho. 2000. Do You Know Our Agony? Massacre of Villagers by the U.S.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i>Asian Solidarity Quarterly (Seoul)</i>, 2: 80-90. • R Schuit. 2000. First Person: The Grapes of No Gun Ri. <i>The Humanist</i>, 60(4): 45-47. |

3.5 제3기: 공식 기억의 시기, 확장되는 기록들

3.5.1 노근리의 공식 기억

『노근리특별법』의 제정, 노근리 평화공원의 설립 등을 거치며 노근리 사건은 점차 한국전쟁의 공식 사회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를 김형곤(2007)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공식기억이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정지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다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어떤 기억들은 용인되고, 어떤 기억들은 가공되고 변형되며 때로는 사라질 것을 요구받는데, 이때 공식 기억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 중 사회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기억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오랫동안 우리가 내면화했던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 기억은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해낸 전쟁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때문

에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과 교육이 지속되었다. 이들에 대한 기억은 한국전쟁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공식 기억으로 여전히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박물관과 전쟁기념관 등은 전쟁 기록 전시를 통해 기억을 환기시키고 재생산해낸다(김형곤, 2007). 노근리 사건의 발굴과 평화공원의 설립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전쟁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와 희생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노근리 평화공원은 전쟁의 외중에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공원은 이를 기억하도록 하는 문화적 기억 장치다. 평화공원 내의 위령탑과 조각 공원, 박물관과 아카이브, 비문과 쌍굴 다리는 우리가 노근리의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근리의 기억은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해석에 근거한다. 즉 더 이상 한국전쟁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서가 아니



〈그림 1〉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좌)와 평화공원(우)의 전경

라 전쟁과 잔혹함과 상처로 기억된다. 김형곤(2011)은 역사교과서에 실린 한국전쟁에 관한 사진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가 한국 전쟁의 의미를 북한군의 기습납침에 맞선 한국군의 영웅적 전쟁행위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가 전쟁의 피해자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기억으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한국전쟁에 대한 의미의 변화가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노근리 사건은 이제 거창민간인 학살, 제주 4·3 사건 등의 일련의 비극적 사건과 함께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손경호, 2011).

평화공원의 설립과 함께 노근리의 기억은 공식 기억들이 가지는 문화적 특권 대부분을 향유하게 되었다. 노근리 사건은 금성, 천재, 삼화, 미래인 출판사 등에서 출판한 7차 한국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렸다. 교과서는 특정 기억을 영속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기억을 권위 있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억의 장'을 이루고 있다(김형곤, 2011). 특히, 역사교과서가 사회적 기억의 발굴 및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록, 기사, 논문, 기념 행사, 혹은 박물관 등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근리 사건이 여러 기억들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케 한다. 노근리 사건이 한국사 교과서에 실렸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공식 기억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기록, 국

제법, 인권, 역사, 정치 등 각계 전문연구자들은 노근리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10년 이후 노근리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은 웹 2.0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노근리 사건에 대한 기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망라한 공간에서 재생산되고 또 확산되고 있다.

3.5.2 확장된 기록들

오늘에 이르러 노근리 사건의 기록은 공식 기억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은폐되거나 억압되지 않는다. 다양한 주체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방식으로 기록 생산에 참여하며,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언론 기사나 TV 프로그램뿐 아니라, 전문 학문 영역에서 생산한 학술논문들이 있다. 법학 분야와 교육학, 기록학, 사회학 등 전문 학술 분야의 학술대회에서 생산된 연구 결과물을 비롯하여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되었다.

문화예술 활동도 활발하다. 노근리 평화상 및 인권상, 백일장 등의 대회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을 이끈 행사 기록이 존재한다. 영화와 칸타타, 관현악 악보, 시, 그림 및 조각, 회화전, 다종이 인형전 등 여러 예술 형태로 구체화되면서 생산된 기록들이 있다. 피해자 위령제와 피해보상, 평화공원 건립 및 유지 등과 관련된 공공기록물 등이 조사되었다. 즉 학술 연구와 다양한 공식 이벤트 참여 및 개최로 인한 대중적 관심,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으로 기록주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상당한 분량의 다양한 기록 생산으로 이어졌다. <표 4>는 노근리 평화 공원 내 아카이브에 보존된 기록물 목록의 일부다.

〈표 4〉 제3기 기록물 목록 일부

| 유형 | 내용 |
|--------------------------|--|
| 행정 기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근리 역사공원 사료관리 및 시설 운영계획 연구 • 2006년도 6.25전사자 유해발굴보고서 • 노근리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안)(제6차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 • 노근리사건희생자 묘역조성에 대한 건의 • 미 국방부 회신 답변 •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 •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님 면담 요청 • 노근리 쌍굴다리 보수공사 • 노근리 위령사업 해외벤치마킹자료 • 노근리대책지원 업무추진 간담회 2 • 제 4차 노근리 사건 위령사업 자문위원회 자료 |
| 언론 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취재팀 풀리처수상 관련 사진 |
| 행사 (학술대회, 평화 캠프, 평화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국제평화학술대회 학술논문집,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 2007년 제2회 한미 대학생 노근리 인권평화캠프 강의안 • 노근리 평화상 수상소감(청주MBC, 시청각자료) • 제1회 노근리 인권평화 학술문화제 주요행사장면 사진모음집 • 2009년 제2회 노근리평화상 수상후보자 1차심사단 심사자료(언론부문) •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관련 기록 • 미국관련희생사건 전문가 간담회 관련 기록 • 제1회 노근리 학술문화제 관련자료 |
| 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4회 〈노근리전〉 • 제2회 노근리특별순회 〈미술전시회 '평화를 그리다'〉 관련 브로슈어 및 기록들 |
| 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포니칸타타 〈노근리여 영원하라〉 - 독창자와 혼성합창, 대편성 관현악을 위한 악보 • 〈노근리 하늘 노래〉 악보, 〈노근리여 영원하라〉 노래 악보 및 시청각자료 |
| 영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노근리 NO GUN RI〉 대본 • 〈노근리전쟁〉 시나리오 • 가이드포스트 〈노근리로 가는 길〉 자료 • 다큐멘터리 '노근리는 살아있다' 자막 • BBC 다큐멘터리(한글) |

4. 맺는 글

55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노근리 사건은 주류 이데올로기에 반하여 억압되었던 반기억에서 모두가 기억해야 할 공식적 사회 기억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기억의 지위 변화에 따라 기억이 생산해내는 기록 역시 큰 변화를 겪었다. 제1기 반기억 시기의 기록은 구술 및 개인 소장 기록으로, 제2기 기억의 투쟁기에는 언론기사 및 소송

을 위한 법적 증거들, 손해배상 청구서, 진정서, 한미 양국의 정당 대표에게 보내는 서신, 언론 기사, 미국 아카이브 문서, 전쟁보고서 등 공식 기록들이 활발히 생산되었다. 제3기에는 특별법과 평화공원 건립 및 운영과 같은 공식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이외에도 기억의 사회적 주체들이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생산한 다양한 문화적 기록들이 포함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개인 기

억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사회 기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억 주체의 변화와 함께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 및 양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유족들과 관련된 기록들은 여전히 위령제와 피해보상 등 사건과 직접적인 기록인데 반해, 사회적 기록의 생산자들은 노근리 사건의 의미와 해석을 찾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포착한 기록들을 생산해낸다는 특징이 있다.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은 우리 사회의 평화 정착 과정에서 노근리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스스로 기억의 일부로 내면화했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기억을 다양한 양식의 기억 기술들, 즉 전문 학술논문이나 음악과

시, 그림과 회화 등의 예술작품들로 생산해내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소셜 미디어 공간을 통해 그들의 의견과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노근리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은 이러한 연대기적 기억과 기록의 변화과정을 포착하고 그 의미와 맥락을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가 기억과 기록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고, 기록이 지니는 역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구자들에게 작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근리 사건의 기억과 기록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장정구 (200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전쟁과 인권-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3-22.
- 김기곤 (2006). 국가폭력, 하나의 사건과 두 가지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9(1), 27-63.
- 김찬규 (1999). 노근리 사건과 시제법. 국제법평론, 12, 85-89.
- 김태우 (2011). 영화 <작은 연못>을 통해 본 한국전쟁 다시 쓰기. 작가세계, 87(겨울호), 393-406.
- 김학이 (2005). 안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연구, 33, 227-258.
- 김형곤 (2007).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40, 192-222.
- 김형곤 (2011). 역사교과서와 한국전쟁의 사진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6), 176-184.
- 민경길 (2001).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 연구: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1, 109-148.
- 방선주 (2000). 한국전쟁 당시 북한 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정신문화연구, 79, 19-47.
- 손경호 (2011). 최근 한국전쟁 연구 동향: 2005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56, 206-226.
- 신동희, 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61.
- 안병직 (2007).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 275-306.
- 알라이다 아스만 저, 채연숙, 변학수 옮김 (2011).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 오영호 (2002). 노근리사건 조사 및 교섭결과 분석: 양면게임논리의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

원 안보과정.

- 이만열 (2000).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그 성격. 국회인권포럼 제9회 정책심포지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과 해결 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1-20.
- 이재곤, 정구도, 오윤석 (1999).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한국전쟁 시 소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민간인 살상사건'과 관련하여. 충남대 법학연구, 10(1), 111-136.
- 이환준 (2001). 노근리 사건의 眞相과 敎訓. 軍史, 42, 185-220.
- 진진성 (2003). 기억과 역사: 새로운 역사 문화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사학보, 8, 101-147.
- 정구도 (2006).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129-198.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 정진성 (2001a). 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근리 사건의 재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1(1), 139-171.
- 정진성 (2001b). 인권침해 문제로서의 노근리 사건. 국회인권포럼 제9회 정책심포지움: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 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23-44.
- 조시현 (2001). 노근리 학살사건과 국제인도법. 성신법학, 65-106.
- 최득진 (2000).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법정논총, 49, 12-40.
- 최병수 (2000). 노근리 학살사건에 관한 몇 가지 검토: 6·25 동란 초기 충북영동지구의 민간인 상해사건에 관한 연구Ⅱ. 人文學誌, 19(1), 261-283.
- 최병수, 정구도 (1999). 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老斤里의 美軍對良民 集團殺傷事件을 중심으로. 人文學誌, 17(1), 245-283.
- 현용수 (2003). 노근리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교육학적 이유.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교육. 서울: 두남. 473-509.
- Aleida, Assmann (2009). Erinnerungsraume: Fro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unisses. C.H. Beck oHG.
- Anderson, Kimberly (2013). The Footprint and the Stepping Foot: Archival Records, Evidence, and Time. Archival Science, 13(4), 349-371.
- Bastian, Jeannette (2013). The Records of Memory, the archives of identlty: celebrations, texts and archival sensibilities. Archival Science 13, 121-131.
- Blouin, Francis X (1999). Archivists, Mediation, and Constructs of Social Memory. Archival Issues, 24(2), 101-112.
- Booth, Christopher (2000). Prosecuting the 'Fog of War?' Examining the Legal Implications of an Alleged Massacre of South Korean Civilians by U.S. Forces During the Opening Days of the Korean War in the Village of No Gun Ri.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3(4), 933-986.
- Caswell, Michelle, & Anne Gilliland (2015). False Promise and New Hope: Dead Perpetrators,

- Imagined Documents and Emergent Archival Evidence. *Journal of Human Rights*, 19(5), 615-629.
- Cook, Terry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2), 95-120.
- Davis, Natalie Zemon (1999). Who Owns History? Historical Perspective on Memory. In Ollia, Anne(eds.) *Historical Perspectives on Memory*. Helsinki: Suomen Historiallinen Seura, 19-34.
- Halbwachs, M. (1922). *On Collective Memory*. Edited,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Lewis A. Coser.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nley, Charles J. & Martha Mendoza (2000). The Bridge at No Gun Ri: Investigative Reporting, Hidden History, and Pulitzer Priz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5(4), 112-117.
- Hutton, P. H. (1993). *History as an Art of Memory*. Hanover, NH: University of Vermont.
- Kim, Choon (2004). Forgotten War, Forgotten Massacre: The Korean War (1950-1953) as Licensed Mass Killings.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6(4), 523-544.
- Oh, Yeon-ho (2000). Do You Know Our Agony? Massacre of Villagers by the U.S.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Asian Solidarity Quarterly*, 2, 80-90.
- Ollia, Anne (1999). *Historical Perspectives on Memory*. Helsinki: Suomen Historiallinen Seura.
- Schuit, Stephen (2000). First Person: The Grapes of No Gun Ri. *The Humanist*, 60(4), 45-47.
- Schwartz, Joan & Cook, Terry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1), 1-19.
- Sinn, Donghee (2007). *Records and Understanding of Violent Event: Archival Documentation, Historical Perception and the Nogunri Massacre in the Korean War*. University of Pittsburgh, 2007.
- Verne, Harris (2002).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1), 63-86.
- White, Kelvin L. (2009). Meztizaje and Rememberingin Afro-Mexican! Communities of the Costa Chica: Implications for Archival Education in Mexico. *Archival Science*, 9(2), 43-5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hn, Byung-Jik (2007). On Memory and History in the Korean context. *The Korean Historical*

- Review, 193, 275-306.
- Cho, Si hyun (2001). 'No Gun Ri' Massacre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ungshin Law Review*, 65-106.
- Choi, Deuk Jin (2000). Civilian killings by the US military during Korea War. *The Law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 12-40.
- Choi, Pyong-su & Chong, Ku-do (1999). A Study on A Massacre of Civilians in Young-dong area, Chung-chong Province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Journal of Humanities*, 17(1), 245-283.
- Choi, Pyong-su (2000). A Study on A Massacre of Civilians in Young-dong area, Chung-chong Province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2). *Journal of Humanities*, 19(1), 261-283.
- Chun, Jin-sung (2003). Memory and History: For the New Theory of Histor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8, 101-140.
- Chung, Chin Sung (2001a). Revisiting the Nogunri Incident: A Human Rights Perspective.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1), 139-171.
- Chung, Chin Sung (2001b). Nogunri incident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issues. *Congressional Human Rights Forum. The 9th Policy Symposium: Symposium on No Gun Ri incident investigation and solution*, 23-44.
- Chung, Koo-Do (2006). Victim's activities for revealing the truth and for regaining the honor. *Nogunri incident victims audit report. Nogunri incident victim audit and honor recovery committee*, 129-198.
- Gang, Jung-gu (2000). Civilian massacres before and after Korean War. *Massacres symposium before and after Korean War: War and human rights-beyond the century of genocide*, 3-22.
- Hyun, Yongsu (2003). The educational reasons to remember Nogunri incident. *Truth and Lessons of the NoGunri Massacre*. Seoul: Donam Press, 473-509.
- Kim, Chan-Gyu (1999). Nogunri massacre and Intertemporal Law. *International Law Reivew*, 12, 85-89.
- Kim, Gi-Gon (2006). State violence, One Incident and the Two Types of Representation - focused on momory and cultural representationprocess of Geochang Massacre. *Democracy and Human Rights*, 9(1), 27-63.
- Kim, Hak-i (2005). Cultural Memory of Jan Assmann. *The Journal of Western History* 33, 227-258.
- Kim, Hyung-Gon (2007). The Official Memory of Korean War and the War Memorial. *Korean*

-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40, 192-222.
- Kim, Hyung-Gon (2011). History Textbooks and Changes of Korean War Photograph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6), 176-184.
- Kim, Taewoo (2011). Reinterpretation of Korean War through a movie "a littel pond." Narrativity, 87, 393-406.
- Lee, Hwan-Jun (2001). Facts and lessons of No Gun Ri incident. Military History, 42, 185-220.
- Lee, Jae-Gon, Chung, Koo-Do, & Oh, Yun-Seok (1999).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se of No-GunRi Bridge in the Korean Wa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view, 10(1), 111-136.
- Lee, Man-Yeol (2000). Fact and nature of Nogunri massacre. Congressional Human Rights Forum. The 9th Policy Symposium: Symposium on No Gun Ri incident investigation and solution, 1-20.
- Min, Kyung-Kil (2001). On a study on international laws relating to protection of civilians on a case study on the No-Gun Ri incident in the Korean War.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arian law, 21, 109-148.
- Oh, Young-Ho (2002). Nogunri massacre investigation and result of negotiation analyzation. Master dissertation.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Pang, Sunjoo (2000). The North Korean 'Eyewitnesses' of the Nogunri Incident: Summary and Afterthought. Korean Studies Quarterly, 79, 19-47.
- Sinn, Donghee & Kim, You-seung (2016). Archivists for Memory: A Theoretical Study on Archives and Memo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41-61.
- Son Kyengho (2011). An Analysis of the Recent Studies on the Korean War.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56, 206-226.